보 도 설 명

보도	2021.10.25.(월)	배포	배포 후 즉시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945)

제 목 : 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한,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아래 매체는 10.25(월)일자 기사 등에서 **외화보험 제도개선과 관련**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① **연합뉴스**는 「달러보험 퇴출 모면할 듯… **'가입자 제한' 도입 않기로 가닥**」 제목의 기사에서 "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, **가입자 제한**과 환차손 보상은 **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**한 것으로 전해졌다"

② **동아일보**는「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**가입자 제한 안하기로**」 제목의 기사에서 "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**방향을 선회**한 것으로 전해졌다"

③ **서울경제**는「달러보험, 퇴출은 피했다 」제목의 기사에서 "금융당국이 **달러 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기보다** 불완전판매 차단 등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"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**외화보험 판매절차·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**하여 **가입자 제한,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